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인류 문화와 함께 한  
하얀 황금  
목화



폭신한 목화 꽃송이는 인류의 필수품이 됐다. 그러나  
하얗고 부드러운 꽃송이 뒤에는 섬뜩한 흑인 노예  
비극이 서려있다. 영겁의 시간동안 인류 문화와 함께 한  
목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편집실



### 인도에서 자라난 목화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기원전 3000년, 나무에 하얗게 부풀어 오른 열매가 인도인들의 눈에 띄었다. 목화(木花)였다. 처음 보는 목화 열매를 유심히 관찰하고 냄새를 맡아보던 사람들은 유달리 보송보송 부드러운 감촉에 예사 열매가 아님을 직감하게 된다. 솜털을 주욱 잡아당기자 가느다란 실이 나왔고 인도인들은 이를 이용해 천을 엮어 옷을 지어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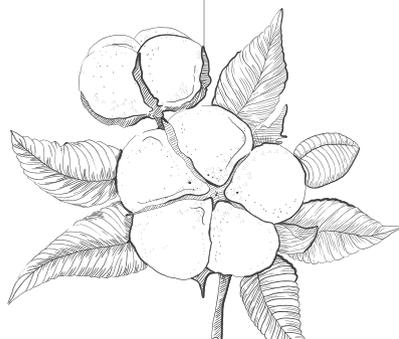
인도는 4500년에 걸쳐 목화 재배와 면직물 제조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열대성 작물인데다 강수량, 병충해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배지를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인도의 목화는 기원전 6, 7세기경부터 로마, 중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전파됐다.

한국에는 1363년 고려의 문신 문익점이 원나라

에서 목화씨를 가져오면서 재배가 시작됐다. 원나라 관리들의 눈치를 피해 씨를 몰래 들여왔지만 가져온 씨앗 대부분이 말라죽고 만다. 불행 중 다행으로 딱 한 개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목화 재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선 태종 때에는 목화 재배를 적극 권장했다. 태종은 문익점의 공로를 널리 알렸는데, 그는 ‘문익점은 (...) 백성에게 옷을 입힌 공로가 있어 만세로 그 혜택이 변치 않고 있다. (...) 그의 자손들은 문관·무관에 다 진출하도록 하라’고 전교했다.

면직물은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점차 화폐의 기능을 수행했는데, 사람들은 옷감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다른 물건과 교환했다. 정부는 많은 분량의 세금을 면직물로 받기도 했다.



## 같이 보기

: 역사에 길을 묻다

### 흑인 노예 부리는 목화농업, 황금 방석을 만든다

목화는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영국은 목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식민지 미국에 목화를 심었다. 이즈음 목화는 국가 번영에 핵심적인 요소였다. 당시 전 세계 역직기의 60% 정도는 영국의 공장에 배치돼 있었고, 수출품의 50%가 면사와 면직물이었다. 또 영국 인구의 20~25%가 면 산업에 생계기반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영국 본토에서의 면화 재배는 거의 없었다. 목화 생산이 어려운 기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남부에 광활한 목화밭을 조성하고 면화를 딸 노예를 두었다. 그때부터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이 백인 농장주 아래서 면화를 따다.

면화가 옷으로 탄생하려면 경작지와 공장에서의 작업이 필수였다. 면화를 따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 여성과 어린 아이까지 노동에 동원됐다. 젊고 건강한 성인 노예는 하루에 130kg, 어린



아이도 45kg의 목화솜을 따다.

대량 생산된 솜은 영국으로 팔려나갔다. 영국은 미국산 목화로 만든 의류를 전 세계에 뿌렸고, 눈물에 젖은 하얀 목화솜 덕분에 풍요를 맛봤다. 그 과정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은 심각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온갖 혹사를 견뎌야 했다. 면직물의 대중화를 이룬 산업혁명이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다. 이는 결국 흑인 노예들의 해방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상자 97만여 명을 낸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 인류, 옷 한 벌에 담긴 환경문제를 고민하다

현대에 와 인류는 목화가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으로 세계 목화 가운데 유기농은 약 0.44% 수준이다. 유기농이 아닌 일반 목화 재배는 공기, 물, 흙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에 의존한다.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7,000ℓ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약 33kg의 이산화탄소가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살충제 사용도 문제다. 목화는 바람과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많이 쓰는데, 전 세계 살충제의 35%가 목화밭에 뿌려지고 있다. 이 살충제 때문에 목화밭에서 일

하는 방글라데시의 아이들은 눈병에 걸리다가 장님이 되기도 한다.

면직물은 현재 의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점차 친환경 소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목화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